

미 “영변 + α” · 북 “모든 제재 완화” … 핵담판 결렬



착잡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틀날인 지난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장인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노이 선언’ 불발 ... 한반도 비핵화 여정 기로 김정은 위원장 3말4초 서울 답방 쉽지 않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기로에 섰다. <관련기사 2·3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채 각각 숙소로 복귀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회견에서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북한에서는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했다”면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가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며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영변 핵 시설보다 플러스 알파를 원했다.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라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영변 핵 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같이 보

냈다”면서 “김 위원장, 북한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핵 담판이 결렬됐지만, 앞으로 몇 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 결렬 소식을 전하면서 “양측은 미래에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무협상 등 비핵화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북미 간의 후속 회담이 일정한 시기에 다시 열릴지 주목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과 관련,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담긴 것으로 예상됐던 ‘하노이 선언’의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 사이에서 북미 간의 견해차를 좁히는 중재 역할을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조기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거론되고 있으며 평양 특사 파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3말4초(3월말·4월초)’로 전망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돈 앞에 무너지는 광주·전남 ‘상생’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갈등 ‘점입가경’
 광주시 “지방세로 정주여건 개선” 제안에 전남도 ‘발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상생 발전에도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가 혁신도시 내 민간 분야 지방세 활용방안을 전남도와 나주시에 제안한 것과 관련, 전남도와 나주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광주시가 제안한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비용을 혁신도시에서 거둬들이는 민간 지방세로 충당하고, 공공기관 지방세는 발전기금으로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들어간 비용 때문에 당장 기금 조성이 어렵다는 나주시의 완강한 입장에 대해 광주시가 내놓은 대안이다.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광주시의 주장이 사실상 혁신도시 내 민간이 낸 지방세까지 공동발전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고광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6년 합의한 협약서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이 납부한 세금까지 발전기금 재원으로 하자는 주장은 말할 것도 없이, 공공기관이 납부한 전체를 재원으로 하는 주장은 협약과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비용으로 도가 450억여원을 이미 지원했다”며 “지방세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광주시의 주장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4일 한전 KDN에서 열린 제8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에서 논란의 책임을 나주시에 돌리며 기금 조성을 서둘러 줄

것을 압박했다. 이 시장은 “혁신도시 조성 비용을 이유로 나주시가 2023년 이후에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광주와 전남이 공동혁신도시를 합의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지난 26일 “아직 이르다”며 이 시장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광주시와 나주시, 전남도는 그동안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활용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왔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 협약에 따라 즉시 기금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아 당장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맞서면서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3·1 운동 100주년 제54회 3·1 마라톤
 오늘 오전 8시30분 문화전당 앞 광장 출발

雪花秀
 高귀한 적송의 생명력으로
 피부, 새로운 힘을 갖다
 NEW 설화수 진설크림

영원한 아름다움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모두가 변치 않기를 바랄 때, 설화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는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젊음을 지켜내는 적송의 강인한 힘과
 청정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산양삼으로 완성된 진설크림—
 이제, 매일 더 새롭게 아름다워지는 피부의 힘을 가지세요





Sulwhasoo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